"웃음·감동의 90분… 더 큰 무대 올렸으면"

■ 연극 '소막마실 가는 날'

기초자치단체가 후원·제작한 연극으로 흔치 않게 관객의 극찬을 받은 연극 '소막마실 가는 날'의 한 장면. 소를 형상화한 오토마타의 등장으로 극의 몰입감을 높였다.

우암동 189번지 소막 마을을 배경으로 6·25때 피란민의 애환을 다룬 연극 '소막마실 가는 날'이 성황리에 마쳤다. 공연은 지난 11월 7~9일 사흘간 경성대 콘서트홀에서 네 차례 열렸고 우암동 소막마을 일원에서 두 차례 거리공연을 가졌다. 남구청이 기획·후원한 이 연극은 지역의 역량과 한계를 한단계 넘어 90분간 관객을 웃게 하고 감동시키고 때로 눈시울 붉히며 과거로 소환했다.

연극의 주된 배경은 피란시절 우암동 소막마을이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소를 일본에 수출하던 거점이었고 이후 해방과 6·25를 겪으면서 다양한 삶의 군상들이 모여 뿌리내린 격동의 현대사가 녹아든 현장이다.

무대를 1950년대 피란시절로 꾸미고 암울했던 시대의 어두운 배경과 그 시대의 복장으로 분장한 배우들, 미디어파사드 기법, 특히 소를 형상화한 '오토마타(automata)'로 관객들은 70년 전으로 빨려 들었다.

연극은 어른이 된 '안복'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피란도중 형을 잃고 고아가 돼 소막마을까지 흘러들어온 안복은 상상의 소를 불러내 이 소를 죽은 형이라 여기며 힘든 시절을 극복한다. 이 과정에서 소막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성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궁박한 시절이었지만 사람들은 온기로 안복을 품어준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안복'은 그렇게 성장한다. 고단한 이야기임에도 연출의 묘미를 살려 웃음을 터트리게 하는 유쾌한 장면도 많았다. 연극을 본 관객들은 "이 정도 수준이면 당장 상설연극으로 더 큰 무대에 올려도 충분하다"는 호평을 내놓기도 했다.

경성대 콘서트홀의 무대가 추억으로 가는 여행을 도왔다면 우암동 소막마을 일대에서 펼쳐진 길거리공연은 한바탕 마당극에 가까웠다. 배우 두 명이 몸통 안에서 조작하는 오토마타가 100년 된 상가골목을 돌아다니며 가게의 번영을 빌어주자 마을주민들은 마치 누렁이 소가 돌아온 것처럼 꼬리도 만져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교감을 나누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소를 어루만지며 마치 근대화 시절 우암동의 전성기를 다시 느끼는 듯 했다.

임은옥 명예기자

"저게, 소야 로봇이야?" 오토마타 화제

국내 연극무대 처음 등장

연극 '소막마실 가는 날'의 백미는 단연 오토마타(automata)이다. 나무와 철제로 소를 형상화한 이 장치는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에서 만들었다. 제작비용만 2600만원이 들어갔고 기간만 한달 보름이 소요됐다. 이런 대형 오토마타가 연극 무대에 오른 것은 국내에서 첫 시도이다.

무게가 40㎏에 달해 배우 두 명이 몸 통 안에서 움직임을 조작해야 한다.

특히 관절 장치가 정교해 소가 발로 바닥을 긁는 미세한 움직임을 실제에 가깝게 구현했다.

25년 주민에게 사랑 받은 마을 횟집

남구의 맛집&멋집

문현동 한산도횟집

유명 맛집 파워블로거로 활동하는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괜찮은 횟집이라며 소개받은 한산도횟집은 문현동 메가마트 맞은편 뒷골목에 위치해 있어 외지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부산맛집기행 회원들과 함께 들어섰을 때 여느 횟집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우선 수족관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양호하였다. 만약, 수족관의 상태가 불량했다면 회맛이 아무리 좋다 해도 바로 '낙제점'을 줬을 것이다. 주방을 주인장 몰래 면밀히 보게 된다. 청결상태에서부터 직원 자세까지 확인했다. 건장한 남성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생선회 장만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었다. 모자지간에 칼을 교대로 잡는다고 한다.

생선회는 재료의 싱싱함이 우선이고 다음이 칼질이 아닐까. 테이블에 앉았을 때 나오는 밑반찬도 확인했다. 생선회에 치중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밑반찬들이 좋아서 단골이 된다는 이들도 많아 무시할 수는 없다.

자연산과 양식을 계절에 맞게 먹을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자. 많은 고객들은 양식과 자연산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연산을 속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좋지 않을까. 육질이 양식보다는 낫기 때문만은 아니다. 항생제 성분의 잔류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집은 각종 재료들을 국내산으로 사용해 믿음이 간다. 더욱이 25년을 한 자리에서 동네 주민들의 인정을 받아 가며 성장해 온 곳이다. 다양한 메뉴들이 기본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화(부산맛집기행 카페지기, 블로그 '전세계를 돌아 다니는 사자왕' 운영)

■ 안내·알림

겨울방학 무료 코딩 수업

남구는 오는 겨울방학 기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꿈나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프로그래밍 도구인 '스크래치'를 활용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통해 논리·창의적 분석력을 키운다.

남구청 5층 정보화교육장에서 2020년 1월 6~17일(10 : 10~12 : 10, 13 : 30~15 : 30) 2주간 진행한다. 남구 거주 초등학생(4~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12월 19일부터 선착순 전화 모집. 평생교육과(☎607-4301~6)

12월 대동골 기획공연

대동골문화센터의 기획공연프로그램 '열린무대열린객석'에서 12월 14일(토) 16 : 30 한사랑예술공연단(트롯, 민요, 에어로빅), 22일(일) 15 : 00 소리지 오카리나 앙상블(가요, 팝, OST 등 오카리나 연주) 공연이 무료로 열린다.

부산증권박물관 12월 4일 개관

문현금융단지 내 2만4000㎡ 규모… 국내 최대 금융박물관

12월 9일부터 일반인 관람

부산의 새로운 금융랜드마크가 될 부산증권박물관이 오는 12월 4일 남구에 문을 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인 '문화복합몰 국제금융센터부산(IFC부산)' 2층에 전시실 4개, 주제영상관 1개 등을 갖춘 2만4000㎡ 규모의 국내 최대 금융박물관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예탁결제원이 2004년부터 경기도 일산에 운영하고 있는 증권박물관의 3배 규모이다. 증권 관련 경제사, 문화, 증권의 미래상 등 증권과 금융 관련 전시물 900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전자증권시대 개막과 함께 문을 여는 이번 부산증권박물관은 단순 전시 공간을 뛰어 넘어 금융라이브러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부산증권박물관에 설치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전시물.

이로써 지난 4월 문을 연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역사박물관(BIFC 51층)를 포함해 한국은행 화폐전시관,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기술보증기금 과학체험관 등과 함께 문현금융단지 내 금융박물관 로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이며 일반인 관람은 12월 9일부터 가능하다.

제2회 BIFC 63층 계단오르기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대회에 앞서 광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 이두래 명예기자 BIFC 계단오르기 대회 참가기

하늘 아래 BIFC, 두 발로 오른 1576계단〈289m〉

한국 금융의 메카 문현금융단지. 저 만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빌딩이다. 저 건물이 오늘 올라야하는 '태산'이다. 올려다볼수록 위압감에 사로잡혀 내 체력으로 완등이 가능할까 싶어 새삼 걱정이 앞선다.

지난 11월 8일 열린 'BULLS RUN TO THE SKY', 한국거래소가 주최하는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계단오르기 대회다. 올해로 2회째를 맞으며 시민의 건강한 스포츠문화를 형성하고 참가비 전액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나눔도 실천하는 이색 스포츠행사다.

주말 아침, 달콤한 늦잠을 뒤로한 참가자들이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혈압도 체크하고 배번호도 받았다. 여러 금융관련 단체들의 부스에서 간단한 아침식사도 제공한다. VR체험, 페이스페인팅, 로데오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들도 보인다. 식전행사로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 팀들의 공연 후, 치어리더 박기량과 함께 몸풀기 체조도 흥미를 더한다.

63층, 289미터, 1,576계단의 출발선에 선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대회 참가 신청 후부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10층 아파트계단을 걸어 오르는 연습을 하루 두 번은 하기로 맘속으로 다짐했건만 단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한 채 덜컥 오늘에 이르고야 말았다.

7층까지는 그래도 할 만 한 게임이다. 여기까지는 순전히 나 혼자 흐트러짐 없이 꼿꼿하게 걸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엇엔가 의지가 필요하다. 계단손잡이를 잡고 걸어 오른다. 25층, 숨이 턱에 찬다. 낑낑대며 슬로모션으로 오르는 중이다. 나를 휙휙 스치며 신발에 용수철을 단듯 두 계단씩 튕겨지듯 오르는 일군(一群)의 누군가는 젊고 날쌔다. 후회가 이마를 때린다. 지금까지 먹은 것 밖에 없는 것 같다. 나이만 그리고 음식만. 그래서 늘어난 건 주름과 체중뿐이다.

현재 42층, 나의 체중은 천근만근이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잡아당기고 다리는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무겁다. '현재 높이 200미터 내려가기엔 너무 높이 와버렸다'. 벽에 붙은 글귀에 환장할 노릇이다. 천근만근의 체중으로 89미터 높이를 더 올라야한다니 울고 싶다. 너무 멀리 와버려 되돌릴 수 없다면 올라야 한다. 묵묵히 저 수많은 내 앞의 계단을 무딘 이 몸으로 무찌르고(?) 전진, 아니 등정을 하는 수밖에.

63층 1,576번째 계단에 발을 디딘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다. 마지막 계단이 보이자마자 마음은 이미 마지막 계단을 밟고 서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정상에 발자국을 찍으면 이처럼 기쁠까. 몸의 피로가 한방에 싹 사라진다. 30분51초. 기록증을 받아든다. 학창시절 체력장 이후 처음 기록을 측정하는 운동에 도전해 보는 귀한 경험이다.

UN평화문화특구 협의체 12월 소식

기관명	행 사 명	일 시	장 소	관람료	문의처
(재)부산 문화회관	해설이 있는 오페라갈라콘서트 라트라비아타&라보엠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	12. 2.(월) 19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607-6000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12. 3.(화) 19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12. 4.(수) 21 : 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크리스마스 선물!–	12. 6.(금)~7.(토) (금) 19 : 30/(토) 15 : 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부산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오델로'	12. 12.(목)~14.(토) 12~13(목~금) : 19 : 30/ 14(토) : 17 : 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2회 정기연주회 2019 송년음악회 '오페라&뮤지컬 하이라이트'	12. 17.(화) 19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7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12. 19.(목)~20.(금) 19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2019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부산	12. 20.(금)~25.(수) 20.(금) 19 : 30/ 21.(토) 15 : 00, 19 : 00/ 22.(일) 14 : 00, 18 : 00/ 23.(월)~24.(화) 19 : 30/ 25일(수) 14 : 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VIP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	12. 24.(화) 19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1만원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운악(雲樂)–	12. 28.(토) 14 : 00, 18 : 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	
	2019 제야음악회	12. 31.(화)22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재)부산 문화재단	2019 홍티아트센터 & Pier-2 국제교환 레지던스 프로그램 Chan Yung-jen 개인전〈Wonderland〉	11. 20.(수)~12. 04.(수)	홍티아트센터 1층	무료	263-8663
	사상인디스테이션 인디페스티벌 〈인디 워 홀〉	12. 13.(금)	사상 인디스테이션	무료	316-7631
	사상인디스테이션 기획전시 B-Side 레트로(골목)	12. 4.(수)~22.(일)	사상 인디스테이션	무료	316-7631
부산 예술회관	2019 송년음악회	12. 4.(수)~5.(목) 19 : 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631-1377
	2019 생활예술한마당	12. 11.(수)~13.(금) 19 : 30	부산예술회관 전시장공연장	무료	631-1377
	작은영화콘서트 〈왕의 남자〉	12. 17.(화) 16 : 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631-1377
	제1회 이상윤사진전시회	11. 30.(토)~12. 5.(금)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무료	–
	한땀한땀꽃피어라_퀼트전	12. 17.(화)~19.(목)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무료	–
UNPM 패밀리 서포터즈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12월 정기환경정화봉사활동	12월 매주 토요일	UN평화문화특구	무료	901-1402
	유엔평화기념관 홍보도슨트활동	12월 매주 토요일	유엔평화기념관	무료	901-1402
부산 박물관	수험생대상 인문학 콘서트 〈休, 쉬어가는 박물관〉	12. 5.(목) 10 : 00~12 : 00	부산박물관 대강당	무료	610-7184
	국제전 연계 야간 프로그램 〈미얀마의 불교미술〉	12.6(금)~28(토) 매주 금토 야간 19 : 00~20 : 30	부산박물관 교육실	무료	610-7184
	학예연구사, 지금 만나러 갑니다 〈대학생 대상 멘토링〉	12. 6.(금) 10 : 00~17 : 30	부산박물관 교육실	무료	610-7182
	박물관투어 〈부산박물관 및 소속분관〉	12. 18.(수) 13 : 30~18 : 00	부산박물관 및 소속분관	무료	610-7182
	토요박물관교실 〈부산의 독립운동〉	12. 21.(토) 14 : 00~16 : 00	부산박물관 교육실	무료	610-7182
	12월 문화가 있는 날 〈라온, 성악앙상블〉	12. 27.(금) 17 : 00	부산박물관 대강당	무료	610-7181